

法數로 배우는 불교

5

일불승 ㉔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남방불교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과 같은 개인적 수행을 강조한 반면 대승불교는 육바라밀 십바라밀과 같은 이타적 수행을 강조하며, 중생구제 없는 수행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또 부처님에 대해서도 남방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과거7불 그리고 미래불인 미륵불만을 인정하는데 반해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주에 두루하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는데 얼마든지 많은 부처가 출현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출가도 남방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은 출가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출가의 공덕에 입각한 수행을 으뜸으로 친 반면 대승에서는 석가모니의 수행은 이 세상에 오시기전부터 수많은 보살행을 통해 해온 것이기 때문에 출가 후의 수행은 출가, 비출가 이전에 보살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같이 남방불교와 대승불교는 과거부터 불교의 제반사상에 대하여 서로 간에 상반된 입장을 취하면서 적지않은 마찰을 가져왔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지닌 측은 대승측이었다. 대승의 많은 경전에서는 전통적이고 개인위주의 수행을 강조하는 상좌부 계통의 수행자들을 소승의도라고까지 칭한 정도였다. 대승경전에 의하면 대승을 따르고 실천하는 수행자들을 가리켜 보살승이라 하고

성문·연각·보살은 방편

법화경 '회삼귀일 사상' 일불제자 가르쳐

소승을 따르고 실천하는 수행자들은 연각승 성문승이라 한다. 이것을 삼승(三乘)이라 하는데 이는 순전히 대승측의 분류일뿐 남방불교의 방식은 아니다.

남방불교의 입장에서는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모습일뿐 실제로는 스승의 설법을 듣고 법을 깨치는 성문승과 연각승을 스스로 관하여 법을 깨치는 연각승만이 있다. 대승불교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인정을 하진 안하던 성문승으로서의 보살승과 소승으로서의 성문승, 연각승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대승의 모든 경전이다 그랬을까? 그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전이 성문과 연각 같은 개인구제를 중심으로 한 성자들을 꾸짖고 비난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교의 최고경전이라

고 스스로 자부하는 법화경에서는 이 세가지의 수레를 하나로 귀일시키고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회삼귀일(回三歸一), 즉 셋을 하나로 복귀시킨다는 사상인데 그 하나란 일승(一乘: Ekā-yana)을 말한다. 일승은 대승과 소승을 통합시키는 또다른 차원의 크나큰 수레로 기존의 대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법화경》 방편품에 의하면 부처님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 셋에 대해 공극이 아닌 방편이고 실제로는 일불승뿐이라고 하면서 소승과 대승을 하나의 크나큰 부처의 수레(一佛乘)에 오르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였다.

쉽게 비유해서 말하면 우리가 혼자 타고가는 소승을 오토바이에 비유하고



김진수

여럿이 함께 타고가는 대승을 버스에 비유한다면 일승은 오토바이와 버스를 다함께 이 기술에서 저 기술으로 태워다 옮겨주는 큰 배와 같다는 것이다. 이는 소승과 대승의 분열을 막고 하나의 커다란 부처승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가르침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나 이것은 우리 대승불교가 안고있는 국가간의 큰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화경의 일불승적 사상은 아직도 교리적으로나 수행적으로 대·소승 불교국가간의 단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젠 불교도 과거시대와는 다른 불교국가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성문승과 연각승을 추구하는 남방불교와 보살승을 추구하는 대승불교가 하나의 커다란 부처의 수레 속에서 함께 굴러갔으면 한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나의 수행일기

맹구우목(盲龜遇木)! 불법만나기 힘들음을 일컫는 말이다. 도처에 절이 있고 법회가 있어 불법을 만나기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각자의 필요에 맞는 법회를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신앙적 방향을 삼키게 겪었던 내가 서양종교를 버리고 불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중학교 시절이었으나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정도를 조금 넘은 것일뿐 실제로 정법을 만난 것은 서울불교청년회에 나가던 어느해 속리산 법주사에서였다.

장소만 기억나고 법사 스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새벽 예배를 마친 내가 졸면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부모미생전 본래진면목'이라는 그 유명한 화두를 설하시는 대목에서 내 귀가 번쩍 뜨였다. 아니 아버지의 몸에 등기전의 나의 모습이라니?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이 화두는 창조와 진화의 상대적 개념속에 방황하던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끝내 나로 하여금 생활 자체를 불법 흥표라는 일과 연결시켜

송위지 <유마선원학원 >



저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인지 그전에 그렇게 병원을 좋아하시던 어머니께서 내가 스리랑카에 있는 동안 한번도 병원에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굳은 의지와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이 있기도 했지만, 분명 부처님 가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늘 불은(佛燈)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르침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도리와 인과의 법칙이다. 무상의 도리속에서 항상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남에게 서운한 일을 당하거나 또 누구와 경쟁할 일이 생기면 먼저 비켜간다.

인과의 법칙을 알면서 내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으니 굳터더기를 필요로 하

"무상의 도리·인과법 내삶의 좌표"

지계·보시 가정서부터... 가족·친지 장기기증

주었으니 그때 법주사에서의 경험은 바로 맹구우목 그 자체였던 것이 이후 나는 방관자적 자세에서 하던 청년회 활동을 바로 내 자신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접했다. 공군본부 군종감실에서 불교종무병으로 복무하면서 낯익은 목사들의 구두담은



지 않는 명쾌한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침마다 모시는 예배에서도 또 각종 법회에서든 언제나 나는 무상과 인과를 생각하고 이웃과 집안 식구들에게도 항상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나는 또 다른 서원을 세웠다.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의 서울과 용인 양쪽 캠퍼스의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를 맡아 매주 법회는 물론 조용하게 캠퍼스 청정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서원은 나도 스님과 똑같이 정진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작게라도 지계와 보시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동안가때 나는 물론 우리 식구와 몇몇 친지들의 장기기증을 성사시켰다. 사실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으나 몇몇전 돌아간 우리 어머니에게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우리집의 아침은 예불로 시작된다. 매일 울리는 발원문은 그날그날의 사연에 따라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가슴 뭉클하게 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발원문은 정경 앞으로 우리집의 희망인 것 같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상좌부불교

인도에서 개설한 사이트 '상좌부불교' (Theravada)에서는 하이테크(high tech)로 구현된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불자 네티즌이 한번쯤 방문해 정신과 기술 문명의 총아를 마음껏 살펴볼 수 있다.

'상좌부불교'에서는 부처님생애·상좌부의 대장경 등의 굵직한 정보 이외에도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시론·불서(佛書)·불교뉴스·전자도서관 등의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0여 경전·논문·에세이등 소개

탄생·고행·성도·전법 등으로 구분해 제공된 '부처님생애'에는 나라다스님의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 (Cultural Conservation Trust 刊)에서 일부를 발췌해 제공해주고 있다. 이중에서 탄생과 성도에는 동화적인 삽화도 함께 보여준다.

'대장경'에서는 한국불교에서 낯설지만 아난다존자가 경·율·론 삼장을 결집해 만든 경전(Anatlakkhana)을 상좌부불교 대표 경전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30여종의 경전에 대해 주석



과 전산본을 각각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성제, 팔정도, 율법, 열반 등의 불교용어를 풀이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담마나다스님의 (불교의

신념)(Buddhist Missionary Society 刊)에서 일부를 인용해 동시대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질문되는 결혼·여성·세계 기원·원죄 등에 대해 불교적 해안(慧眼)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불교사·불교사회학·불교철학·윤회·명상·여성·자비 등 여러 주제에 대한 논문, 에세이, 서적 등을 알파벳 순서로 제공하고 있다.

주소는 'http://www.inet.co.th/Cyberclub/bow' (속)

"석굴암 목조전실 있었다"

문화재연구원 김봉건실장 KBS '원형탐구...'에 반론

"샘물 통한 습도조절 확인 안돼"

지난달 5일 KBS ITV가 방영한 '일요스페셜-원형탐구 석굴암'의 내용에 대한 몇가지 반론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김봉건 문화재연구원 미술공예연구실장은 KBS의 "석굴암은 현재처럼 나무로 된 전실(前室·목조전실)이 없었다. 외벽은 흙과 돌을 섞어 축조한 구조였으며, 석굴내부 바닥에 차가운 샘물이 흐르게 하여 자연스럽게 습도를 조절했다. 통풍과 채광을 고려한 광창(光窓)이 있었다"는 방영내용은 석굴암의 원형에 대한 여러 가설 중 현재의 보존방식과 대치되는 설만을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조전실문제와 관련해 김실장은 목조전실이 없었다면 석굴암 입구의 팔부신장상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보존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벽 구조와 관련해서는 만약 외벽이 돌과 흙으로 축조해서 공기를 통하게 했다면, 비나 눈이 왔을 때 빗물이 굴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김봉건

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석굴 바닥의 샘물을 통한 습도조절에 대해 김실장은 보수공사 때 이러한 효과를 고려한 바닥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바닥 밑으로 찬 샘물이 흐르게 해 그 온도차이로 벽과 천장의 이슬맺힘을 막았다면 바닥의 돌이 질서정연하게 시공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광창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김실장도 그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만약 광창이 있었다면 광창과 외벽의 이음처리를 어떻게 해 누수를 막았으며, 외부로 노출된 광창 앞부분에서 발생할 누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우)

1997년도 도시생활 포교사를 위한(1년 과정)

동산불교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개설 취지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습니다. 불교의식처럼 다양하면서도 장엄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장중·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글화한 불교의식의 습득으로 생활 속에서, 특히 경조사에서 불교의식 집전은 불교대화와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산불교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글불교의식교육 3기생을 모집합니다.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7년 3월 8일 (토) 3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상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열한시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승주 정일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일·돌·생일 의식과 결혼 의식 ● 장례의식(1) 일반의식 ● 장례의식(2) 일종·매장·화장 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직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장	97년 2월 1일(토) ~ 3월 7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3:00~4:30(동산법당) (본연구원 법당)

5. 입학금

● 입실만원

6.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교육원 사무국(732-1206~8/FAX : 732-1207)

7.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자격 수여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110-170)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포교현장의 전문법사양성(3년과정)

97학년도 동산불교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불교전문 연구원 개설 취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화중생, 보살도를 중생속에 실천하는 사명감 있는 전문법사, 포교사를 양성코저 3년과정의 동산불교 전문연구원을 개설함.

2. 교과목 및 교수

경전과정 (매주월요일)	1학년	2학년	3학년	·유전장 스님(연구원원장)	·법종 교수(동산법당포교사)	·법종 교수(동산법당포교사)
	1학기 화엄경입문개론 2학기 화엄경 I	1학기 중론 2학기 불교이론	1학기 화엄경 II 2학기 불교이론	·법종 교수(동산법당포교사)	·법종 교수(동산법당포교사)	·법종 교수(동산법당포교사)
응용과정 (매주목요일)	1학기 비교종교·양교 2학기 아함경 I	1학기 법화경 I 2학기 법화경 II	1학기 화엄경 I 2학기 표교명법론	·유전장 스님(연구원원장)	·법종 교수(동산법당포교사)	·법종 교수(동산법당포교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개강일시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30명)	① 불교대학(전)이수자 ② 불교대학(후)이수자 ③ 포교사 이수 희망자 ④ 포교사 취직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장 ④ 포교사 이수 희망서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97년 2월 1일 ~ 3월 1일(토) (서류전형)	97년 3월 3일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동산법당 법당 거주자나 출석 수료자 어려우시면 지원가능

4. 개강일시

1997년 3월3일(월), 4일(화) 오후 7시

5. 입학금

입실만원

6. 졸업자격

경전과정(6과목 이수), 응용반(5과목 이수) 합하여 11과목 이상 이수자에 연구원 졸업장(전문법사)을 수여함.

7. 원서문의 교부·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문의전화 : (02)732-1206~8, 722-0408/Fax:732-1207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110-170)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